

# 목포 삼학도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꽃길 조성

### 중삼학도에 황토포장 무장에 산책로 조성 수선화꽃·산수국·원추리 등 7종 7만8천주

목포의 삼학도가 시민의 휴식처로 거듭나고 있다.

목포시는 2020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중삼학도에 '삼학도 무장에 나눔길'을 조성했다.

삼학도는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어린이바다과학관 등 문화관광시설이 자리잡고 있어 소풍나온 어린이를 비롯해 가족단위 방문객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다채로운 꽃을 식재해 삼학도 나들이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오는 시는 만

족감을 더욱 높이기 위해 주요 시설과 연계된 중삼학도를 무장에 꽃길로 조성해 봄꽃을 시작으로 계절별로 꽃이 만발하는 휴식공간을 조성했다. 특히 데크시설 없이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며 숲의 훼손을 최소화한 1.0km 황토포장길로 조성해 전국적인 모범 사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장에길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을 시작으로 밀레니엄교를 통해 편리하게 진입할 수 있다. 한식정자 1동과 간이점터 2동, 휴게의자 15개소, 전동휠체어 충전소 등을 설치해 편의성

설도 확충했다.

산책로에서는 수선화꽃, 산수국, 원추리, 가우라 등 7종 7만8천주의 조화류를 접하며 4,500㎡ 부지에 조성된 꽃양귀와 안개꽃 등산, 사계절을 대표하는 왕벚나무, 산딸나무, 이팝나무, 단풍나무, 동백나무 등 다양한 나무 속에서 나들이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는 희망자리사업 230명이 중삼학도 5.7ha 숲 가꾸기에 투입돼 탁 트인 경관과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시 관계자는 "삼학도가 무장에길 조성사업을 통해 편안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갖춘 휴식처로 개선했다.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면 시민과 함께 하는 꽃길 걷기 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목포=박정수기자



영암군, 근로자 코로나19 전격 선제검사 등 방역선도

영암군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취약한 대불국가산단 근로자와 대중교통 종사자 전수검사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검사는 밀폐·밀집·밀접 등 3밀 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감염확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15,500여명을 대상으로 임시 선별진료소 6개소에서 실시한다.

특히 이번 검사는 신속항원키트를 이용한 검사로 30분내 결과를 확인하고 결과 이상자에 대해서는 PCR검사를 추가로 진행하며,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점심과 저녁시간 대를 활용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확

오늘부터 13일까지 3일간

근로자 15500여명 실시

전체 외국인 거주자 검사도

산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에 취약한 근로자들의 전수검사를 시행하게 되었다"면서 "검사와는 별도로 코로나 19가 종식되는 날까지 꾸준히 방역에 집중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은 전남에서 외국인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이번 대불국가산단 근로자 중 외국인 2,800여명의 검사가 끝나는 즉시 3,200여명의 외국인 전체에 대해서도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히는 등 코로나 19 방역에 앞장서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진자 발생 수가 정점을 찍은 후 완만한 감소세로 가고 있으나 전염성 강한 변이 바이러스 위협과 무증상 감염자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준수에 전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영암=조대호기자

## 영광군, 고추 육묘 신청·접수

### 오늘부터 20만주 범위 내 선착순 접수...농가별 40판까지

영광군은 11일부터 2021년도 고추 재배농가 육묘 신청을 받는다.

올해 고추 육묘신청은 20만주 내

서 선착순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농가별 40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농업기술센터 및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직접 방문하여 육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신청 농가는 소농 및 고령농가 위주로 하여 가능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도록 하고, 고추 육묘 관리 및 경영상 어려움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영광=서희권기자

## 영암군,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생·선도농가 모집...22일까지

영암군은 신규농업인(귀농인, 예비 귀농인 및 청년 농업인 등)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2021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의 연수생 및 선도농가를 모집한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연초에 귀농교육시간, 영농규모, 귀농현황, 현지조사, 면접 등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연수생과 선도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체계적인 작목재배 실습교육과 농업정보 등을 1대1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신규농업인은 영암군

에 이주한 5년 이내의 귀농인 또는 지역 이주계획이 구체적이며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예비 귀농인, 만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월 22일까지 영암군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귀농지원팀(문의: 061-470-6612)으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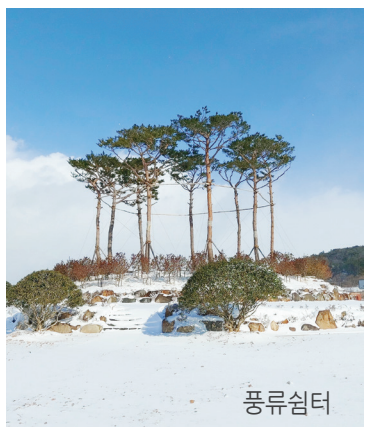
영암=조대호기자

## 무안 회산백련지, 새로운 모습으로 관광객 맞이 준비

### 수상유리온실, 카페·방문객 쉼터로 탈바꿈



백련카페



풍류쉼터

무안군은 지난 7일 회산백련지까지 시설 다각화를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다고 밝혔다.

현재 백련지 내 수상유리온실은 카페와 방문객 쉼터로 탈바꿈하여 3월 중 오픈을 앞두고 있다.

카페 내·외부에는 연꽃, 장미 등

이 그려진 인테리어와 벽화, 안락소파, 비취조명이 어우러진 포토존 등을 설치했으며, 기동을 타고 오른 멋스러운 인조목은 숲의 나무를 연상하게 한다.

2층에는 열대식물 사이사이에 6개의 쉼터를 조성하였고, 특색 있는

탁자와 의자를 배치하였다. 카페가 오픈하면 관광객들은 창 너머로 보이는 철새들을 감상하며 커피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광객들이 맛있는 향토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향토음식관을 연면적 2,098.3㎡ 규모로 건립하였다. 1층에는 음식점과 매점 운영할 예정이며 2층은 다용도 생활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볼거리로 150년 된 9가지 다행송이 식재된 송나인동산을 비롯한 소나무동산, 풍류쉼터, 하트동산을 선보이고 동산과 동산 사이에는 자연성곽식 힐링 돌담길을 조성하였다.

군 관계자는 "올 봄부터는 백련지 곳곳에 다양한 꽃을 식재하여 회산백련지를 품격 높은 힐링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 김준성 영광군수, 새해 최고령 장수 어르신 방문

김준성 영광군수는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지난 7일 최영 영광군 의회 의장과 함께 최고령 장수 어르신을 방문하고 무병장수를 기원했다.

영광군의 최고령 장수 어르신은 군 서면에 거주하는 정판임 할머니로 올해 나이 106세에 이른다.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녀 오복남 씨는 74세의 나이에 도 지극한 효심으로 어머니를 보살피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경료호친 사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행남 효행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판임 할머니는 반가운 얼굴로,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방문해 준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였다.

영광=서희권기자

#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